

# 순천시, (주)로커스와 업무협약체결 'K-디즈니 순천' 속도 낸다

### 서울 강남→순천으로 본사 이전...2025년 코스닥 상장 준비 세계적 경쟁력 갖춘 12편 애니메이션 제작 등 1600억 투자

순천시가 최근 순천만국가정원 국제습지센터에서 전라남도, (주)로커스(LOCUS)와 'K-디즈니 순천' 완성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주)로커스는 국내외적으로 큰 인기를 끈 '베드슈즈', '유미의 세포들', '퇴마록' 등의 3D 애니메이션을 제작한 회사로, 최첨단 제작 기술과 IP(지적재산권)를 모두 보유한 국내 대표 문화콘텐츠 기업이다.

뿐만 아니라 국내 최초 가상 인플루언서 '로지'를 제작한 '로커스-X'와 영화 '타짜', '살인의 추억', '8월의 크리스마스'를 제작한 '썬사이더스'를 자회사로 두고 있으며, 매년 450여 편의 광고를 제작해 애니메이션을 넘어 문화콘

텐츠 산업 영역 전반에 영향력을 높여가고 있다.

이날 진행된 협약식에는 노관규 순천시장을 비롯해 김영록 전남도지사, 홍성호 (주)로커스 대표 등 20여 명이 참석해 기회발전특구 지정, K-디즈니 순천 완성에 대한 협력 의지를 다졌다.

협약에는 △기업의 투자 및 지원을 통한 고용창출과 지역 경제 활성화 노력 △지역 인재 우선 채용 △현장 전문인력양성 및 행·재정적 지원 적극 협력 등의 내용이 담겼다.

시는 본격적인 문화콘텐츠 산업 육성에 앞서 미국, 일본, 홍콩, 싱가포르 국외 연수와 관련 분야 기업 면담, 전문가 자문 등을 추진해 관련 산업의 성장 가능성을 확인했으며, 지역

에서 시장을 선도할 역량있는 선도기업(앵커기업) 유치에 나섰다.

이를 위해 지난해 12월, 서울경제진흥원(SBA)에서 기회발전특구 지정을 위한 앵커기업 투자유치설명회를 개최, 투자 의향서를 제출한 (주)로커스와 협의를 통해 순천으로의 본사 이전과 약 1,600억 원 규모의 투자 유치 성과를 이끌어 냈다.

노관규 순천시장은 "순천시는 정원을 넘어 문화산업도시로 전환하고 있다"며, "순천시가 월드디즈니 본사 역할을 수행하고 로커스가 픽사 스튜디오, 순천대가 UCLA 역할을 수행해 지역과 대학, 기업이 합심하여 고급문화산업 전진기지를 만들어 내겠다"고 말했다.

시는 향후 기업과 세부적 논의를 통해 구체적인 지원 사항과 투자 조항 등 협의안을 마련하고, 시의회 합의각서(MOA) 체결 등의 행정 절차를 거쳐 상반기까지 협약을 마무리 지을 전망이다.



한편, 순천시가 적극 추진하고 있는 기회발전특구는 오는 3월 전라남도 지방시대위원회 심의를 거쳐 산업통상자원부에 신청서를 제출, 대통령 직속기관인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의결을 통해 최종 결정된다.

순천=김승호기자

## 보성군, '서편제보성소리축제' 대한민국축제콘텐츠대상 3년 연속 대상

### 축제예술/전통 부문 대상...대한민국 대표 축제 명성 굳건히 지켜



보성군의 대표 축제인 '서편제보성소리축제'가 '제12회 대한민국축제콘텐츠대상' 축제예술/전통 부문 대상을 수상받는 영광을 안았다.

올해로 12회째를 맞은 '대한민국축제콘텐츠대상'은 (사)한국축제콘텐츠협회가 주최하는 행사로, 지역 관광산업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한 지역축제를 선정해 세계적 축제로 발전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있다.

매년 전국의 실력 있는 소리꾼들이 참여해 온 '서편제보성소리축제'는 전국 판소리 경연대회, 고수 경연대회, 국악 공연 등 다채로운 행사, 체험 프로그램을 안전하고 성공적으로 치러 대한민국 국악 및 축제 발전에 크게 기여한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보성군 관계자는 "서편제보성소리축제는 3년 연속 축제예술 부문 대상을 수상하며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축제로 성장했다"라며, "앞으로도 의향 보성의 위상을 알리는 판소리·고수 분야의 대표 축제로서 명성을 이어 가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보성=김택순기자

## 광양시, 개별관광객 인센티브 '오늘 광양 어때?' 인기

### 운영 40여 일 만에 서울·부산·세종 등 전국서 예산 절반 규모 사전계획서 신청

광양시가 소규모 관광 트렌드를 반영해 올해 처음 추진한 '오늘 광양 어때?' 폭발적인 인기를 끌고 있다.

시는 2~5인 규모 편의 개별관광객에게 여행 경비 일부를 지원하는 '오늘 광양 어때?'가 운영 40여 일 만에 예산 절반 규모의 사전 계획서가 접수되는 등 큰 호응을 얻고 있다.

특히, '오늘 광양 어때?'를 통해 광양을 찾은 관광객이 서울, 부산, 세종, 구미 등 전국에 분포되어 있어 광양관광 브랜딩 등 소기의 목적을 달성한 것으로 분석됐다.

시는 사업의 취지를 살리고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이용 횟수를 1회로 제한하고 관광 지방로, SNS 인증 등의 지원 요건을 강화키로 했다.

강화된 요건은 무료 관광지만 방문할 경우 백운산권, 구봉산권, 삼전강권 등의 권역 중 2~3개 이상의 권역을 방문해야 하며, SNS 인증 시 해당 관광지 정보는 필수로 게시해야 한다.

또한, 인증한 SNS 게시물은 게시일로부터 올해 12월 31일까지 반드시 유지해야 한다.

강화된 지원조건은 변경 공고일(2024. 2. 26) 사전계획서 접수 건부터 적용되며 변경사항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양시청 홈페이지 공고란을 참고하면 된다.

김성수 관광과장은 "올해 처음 시행한 개별관광객 인센티브 지원사업이 예상보다 큰 반향을 일으키며 광양관광을 브랜딩하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줬다"고 말했다.

광양=기동취재본부

## 여수시, 맞춤형 교육경비 지원 위한 교육 현장과 소통

여수시가 지난 2월28일 오전 보건소 회의실에서 2024년도 맞춤형 교육경비 지원을 위해 관내 88개교 학교 부장교사와 간담회를 개최했다.

시에 따르면 올해 교육경비에 전남 최대 규모인 100억 원을 편성, '미래를 선도하는 행복교육도시' 조성을 목표로 지역 인재 육성, 글로벌 역량 강화, 교육복지 향상, 예체능·인성·직

성 함양 등 6개 분야에 46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날 간담회는 사업의 본격 추진에 앞서 관내 초·중·고교 및 특수학교 등 교육 현장 중심에 있는 부장교사와 적극 소통해 '학생중심의 교육 경비 지원'을 위해 마련됐다.

이 자리에서 시는 올해 교육경비에 각급 학

교별 지원 내용을 안내하고 사업 추진에 대한 교사들의 건의사항 등을 청취했으며, 지자체와 학교가 상호 협력해 지역의 교육수요에 공동 대응키로 의견을 모았다.

시 관계자는 "모든 학생의 전인적 성장을 돕는 교육경비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학교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겠다"며 "학생이 행복한 미래교육도시 여수"를 만드는 데 함께 노력해 나가자"고 말했다.

여수=기동취재본부

## 고흥만 선셋가든 조성 본격 시동, 기본계획 수립 용역

고흥군이 남부권 광역관광개발 사업의 일환으로 고흥만 선셋가든 관광경관 명소화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고흥만 선셋가든 관광경관 명소화 사업은 총사업비 106억 원 규모로 고흥만 일원 약 20,000㎡ 면적에 전망대와 카페, 녹지공간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이를 위해 3월 중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수립 용역을 착수해 올해 말까지 사업의 청사진을 마련할 계획이며, 본격적인 공사는 설계가

완료되는 시점인 2025년 초에 첫 삽을 뜰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사업대상지인 고흥만 수변노을공원 일대는 공원지구로 인근에 대규모 숙박시설, 물놀이장, 캠핑장, 공원 등 다양한 편의시설과 넓은 주차장이 확보되어 관광 거점 공간으로 발전 가능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향후 예정된 고흥지구 관광개발 사업과 함께 시너지를 낼 것으로 기대된다.

고흥=기동취재본부

2023년 11월 24일부터 1회용품 사용 줄이기 확대

# 깨끗한 전남 만들기 함께해요



사용금지품목



1회용 종이컵



1회용 빨대·젓는 막대



1회용 우산 비닐



1회용 쇼핑백



전라남도